

동화 심사평*

김성범

5·18문학상 동화부문 응모작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동화부문답게 우화형식으로 쓴 글부터 일상 생활 글까지 섞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난 뒤끝은 그리 개운치만은 않았습니다. 문학상이란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작품이 없었던 까닭일 겁니다.

응모작들이 5·18이란 이름에 너무 짓눌려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5.18 작품들을 만나면서 가장 식상한 구조인 5월을 회상하거나 마음의 병으로 80년 5월에서 멈춰버린 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류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 자료집에 넘겨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집에서 모두 익히 봐왔던 내용이 문학으로 새롭게 읽힐 수는 없을 테니까요. 5월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그에 앞서 ‘문학’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동화에 국한 되는 건 아닐 테지만 5월 문학의 가장 큰 화두는 5월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겠지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동화를 읽는 대상은 어린이입니다. 미래의 5월을 이끌어갈 주인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응모작을 읽었습니다. 읽어낸 소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보면 교과서적인 뻘한 상황설정, 자연스럽게 못한 대화, 억지스런 갈등과 어설픈 화해, 도덕책을 읽고 있는 듯한 교훈적인 이야기 등이 읽는 내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소풍’과 ‘뒤틀문방구 아저씨’ 두 작품을 결심에 올렸습니다.

‘소풍’은 5월의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아버지를 둔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대를 이어 5월의 상처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어린이의 이야기로 너무나 익히 봐왔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먼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뒤틀문방구 아저씨’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이 글도 5월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만 온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듯합니다. 더욱이 결말이 모호하여 수없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작으로 내세우기에는 자신이 없어 가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응모자의 건필을 바랍니다.